



러그 한 장으로 따뜻하게...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러그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침대 발치에 깔 한 장의 러그 덕분에 썰렁하던 침실 분위기가 한결 포근해지는 것은 물론 맨발로 침대에서 내려설 때 발에 닿는 느낌도 좋다. 러그는 덩치 큰 카펫과 달리 크기가 수건 한 장 정도로 작은데다 면 소재여서 청소나 세탁하기에도 그만이다. 이처럼 부담없이 집안을 따스하게 꾸미는데 제격인 인테리어 아이템인 러그로 요모조모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별 연출법을 알아보자.



거실에서의 러그

온 가족이 모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차분하고 온화한 색상과 무늬를 고르는 것이 요령. 왕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너무 연한 색보다 다소 짙은 색 러그를 선택하도록 한다. 요즘 아파트 거실은 바닥재가 대부분 원목이므로 연한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 잘 어울린다. 다만 20평 이하의 작은 평형대는 무늬가 없는 것이 공간을 훨씬 넓어 보이게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

러그를 꼭 바닥에 깔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깨보자. 소파가 가죽이거나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의 패브릭이라 커버를 완전히 바꾸기 힘들다면 러그를 활용할 것. 길쭉한 형태의 러그를 등받이에서 앉는 부분으로 흘러내리듯 깔아주면 따뜻한 느낌과 촉감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방의 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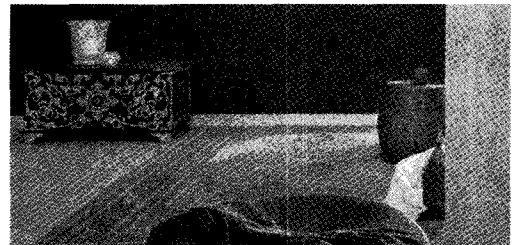
무엇보다 기관지에 해가 가지 않도록 잔털이 빠지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파트라면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랫집에 전달되는 소음이 줄어들도록 두께와 쿠션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이 요령.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따뜻한 색상의 러그가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돋보이는 밝고 경쾌한 색상의 제품으로 재미있게 연출해도 좋다.

침실의 러그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만큼 집주인의 개성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늑하고 편안하게 연출하는 것이 무난하다. 출입이 적은 곳이므로 폭신한 감촉이 돋보이는 긴 털의 러그나 퍼(fur) 소재를 선택해도 좋다.

또한 러그를 고를 때는 길이 방향으로 선이 난 것은 없는지 살피고 파일이 촘촘하게 짜여진 것을 골라야 소파나 의자, 책상 등의 가구를 올려놔도 눌린 자국이 오래 남지 않는다.



특허 특성화 대학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발명특허학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이 학과의 이름을 접했을 때 설마 하는 생각에 반문까지 하곤 한다. '정말로 이런 학과가 있나요?'라고. 하지만 사실이다. 충북 영동대학교에 올해 첫발을 내딛고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발명특허학과는 영동대학교가 '특허 특성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는 특허분석전문가(Patent Analysis, Patent Portfolio), 컴퓨터 특허도면 설계 전문가, 창의적인 발명가, 발명특허를 이용한 벤처기업가, 학생발명지도교사, 기타 특허변리사 등의 발명특허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되었으며, 교육 내용도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현장위주의 실무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출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공한다는 기존의 학과의 교육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창의적인 학생들이 큰 부(富)를 얻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학과이다.

발명교육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

이곳에서는 현장감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식상하기 쉬운 기존의 교육내용을 탈피해 흥미를 유발하며 특허공무원, 변리사, 벤처기업경영자, 공학박사, 경영학박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의 현장감 있는 실무형 강의가 진행된다.

발명특허 출원(도면설계기술) 및 등록, 특허분석, 발명교육, 특허기술이전 및 창업을 위한 종합적 실무 위주의 교육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이론 위주의 교육과 차별화 하였으며, 기존의 법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이공계 중심의 기초실무교육과 함께 제2부전공(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의 필수 이수를 원칙으로 하여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특허학과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아이디어는 곧 경쟁력이다'라는 신념으로 발명과 특허 교육에 계속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윤상원 교수(발명특허학과장)의 숨은 노력에 있었다. 발명특허학과가 만들어지기 이전 발명과 특허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윤교수는 '발명과 특허'라는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윤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적게는 몇 건에서 많게는 몇십 건의 특허를 출원, 청년 실업이 심각한 때에도 취업에 있어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또한 특허청 지정 대학지식재산센터의 지원과 '특허 특성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허에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지원까지 얻게 되었다. '대학발명협의회(특허넷 시범대학)' 구성 대학 중 7개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대학지식재산센터는 각종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의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영동대학교에서는 '1인 1특허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발명과 특허' 과목의 필수 이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활발한 산학 협력 사업의 결과로 2004년 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에까지 특허 및 지식재산권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특허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 최초 BLDC 모터, 일본 기술 수출

전통산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대구시 차세대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벤처기업이 모바일용 브러시 없는 진동모터(BLDC:brushless DC모터)의 상용화에 도전, 3년 만에 세계 최대 진동모터 생산업체인 일본 시코기연에 신기술을 수출했다.

(주)제이엔제의 김정훈(58) 대표는 지난 10월 7일 '현금 5억원과 5년간 이윤의 30%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월 1천5백만개의 진동모터를 생산하는 시코기연이 이 중 5백만개에만 신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2백50억원의 매출은 무난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의 시트라사와도 유럽지역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미국 엑세스텔사는 연간 1천만개 구매의향서를 보내왔고, GTC는 월 20만개를 주문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도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제이엔제의 BLDC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용 브러시 없는 진동모터이기 때문이다. 현재 휴대전화에 쓰이고 있는 브러시 진동모터

는 브러시 마모 탓에 72시간 연속작동이 한계지만, BLDC는 1천5백시간 이상 작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특히 기존 진동모터에 비해 훨씬 얇고 작다. 카메라폰에서 MP3폰, 게임폰으로 고기능화되고 있는 휴대전화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진동모터의 소형화는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 중 하나였다. 15년간 대구 침산동에서 수중모터펌프 제조업체인 이정산업을 경영해오고 있는 만큼, 모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브러시를 불필요하게 할 반도체칩을 모바일용 진동모터 안에 내장시킬 수 있게 소형화하는 R&D(연구개발)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반도체칩의 설계와 시스템 개발에만 꼬박 3년이 걸린 셈이다. 발명특허 3건, PCT국제특허 2건, 실용신안등록 1건 등 지적재산권이 모두 이 분야와 관련이 있다.

김정훈 대표는 '입체진동을 느낄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용 BLDC 진동모터를 내년 2월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특허출원을 마치고 반도체칩을 개발 중'이라며 '이제 휴대전화로 X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와 같은 실감나는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